



“매일 하루 10분, 에너지지식정보교류에 투자”  
“온라인 지식교류 오프라인으로 이어져야”

진성훈((주)에스코프로 진단사업본부장)씨는 매일 아침을 에너지관리공단 정보교류센터 홈페이지로 시작한다. 건물이나 산업공정의 에너지절약설비에 대한 회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다는 일이다. 매일 10분씩,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에너지지식정보교류의 장을 열어가고 있는 진 씨를 만났다. \_ 박정미 기자(psn0304@yahoo.co.kr)

진성훈 씨의 하루시작은 남다르다.

인터넷 주식시장도, 포털사이트의 뉴스폭지도 아닌 에너지관리공단 정보교류센터 홈페이지(www.kemco.or.kr/iecenter)로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하루를 시작한다. 에너지관리공단 직원인가? 아니다.

현재 건물이나 산업공정에 에너지절약솔루션을 제공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인 에스코프로에 몸 담고 있다.

그가 정보교류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기술정보NET이란 콘테츠에 올라온 <묻고답하기>코너에 들어가 지난밤 올라온 질문에 답을 단다. 누가 시켜서 하냐고? 물론 아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는다는 '상식'을 실천하다보니 하루의 일과가 됐다. 이렇게 하다 보니 마일리지제도에 의해 수입도 생겼다. 정보교류센터의 에너지지식검색인 셈이다.

*"솔직히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나 역시 인터넷 등의 검색을 통해 답을 찾아냅니다. 답변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의 실력도 쌓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나누다보면 돌아오는 것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정보교류의 힘인 것 같습니다."*

'지식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얻는 것'이라는 진 씨의 설명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10분이란 시간을 정보교류센터에 투자하다보니 현재 정보교류센터 캐시마일리지 최고소득자에 오르기도 했다.

정보교류센터는 에너지기술전문가와 에너지관련 분야 종사자간의 원활한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절약기술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구축됐다. 업종별 에너지절약사례 및 컨설팅, 기기별 CLUB, 회사별 투자사례, 회원별 블로그 등이 있다. 10월 5일 현재 1만 218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업종별 절약기술사례는 9개 업종의 절약사례 8,136여 건(8월 31일 기준)이 등록돼 있으며 관련해서 '묻고 답하기' 코너가 있다. 이는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코너로 한 회원이 질문을 등록하면 다른 회원들에게 자동으로 메일을 발송하여 질문등록을 알려주고 바로가기기능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

여 답변을 등록하도록 유도한다. 이로 인해 현장 전문가들의 경험에서 나온 실무형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재 89개 업체가 등록 중이며 41개 기기별 클럽, 153개의 블로그가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일본의 분야별 에너지절약사례와 표창기자재 등이 올라와 있다.

센터는 지난 2002년 5월 다소비업체 업종별 기술정보 교류용 정보넷 구축에서 시작했다. 이후 2005년 제품별, 기기별 정보교류 및 기술거래 등 쌍방향 기능을 추가하고 캐시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에너지지식교류의 장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캐시마일리지는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건수마다 100원에서 최고 5000원까지 캐시마일리지를 적립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연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69명에게 1,143만 원을 지급했다.

진 씨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의 연구소에서 10여 년간 에어컨, 유체기기 등의 시험개발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에스코업체에서 고효율펌프사업 등을 추진해 연간 10억 원의 에너지절감성과를 올리기도 한 건물 및 산업체 등의 에너지절약기술에 정통한 기술사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 볼 때 에너지설비관리운영만 잘해도 절감율이 상당히 높으며 이것이 절약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설비관리자 등 엔지니어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낮은 대우로 나타나 좋은 인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 씨의 말이다.

국내 최고의 에너지합리화 기술의 요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보교류센터가 온라인 기술교류에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모임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모임을 통해 기술교환은 물론 자부심과 위상강화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우선 정보교류센터는 지식의 양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필터링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진정 에너지지식인들의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합니다." ☺